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복 있는 사람

(시편 119:1-8)

Those who are blessed

(Psalms 119:1-8)

시편 119편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경험주의, 실용주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받고 사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점차 과소평가 하고 있지만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s 119 is a poem expressing our praise to the Lord for giving us His word. The most precious gift that the Lord has given us is the Bible,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Modern people, who are deeply influenced by the thought of empiricism and pragmatism, underestimate the value and meaning of God's word more and more, but the Bible is the absolute standard of faith and life. We must give thanks to the Lord who has given us the Bible, and put priority on His word.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1.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1-2절)

1. Blessed are those who keep God's word and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v. 1-2).

누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뿐 아니라 이탈하거나 그 길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법을 행하며 여호와와 증거를 준수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그 행위가 완전한 자, 이런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Who serves the Lord with all his heart? Those who do not walk apart and make His way impure, but walks in the way that God has given him to serve Him. Moreover, blessed are those who walk according to the Lord's law, keeping His statutes, fully obeying His precepts, seeking Him, and behaving themselves well; only they can serve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자유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행복을 영원히 보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니다.

Every person seeks after happiness and hopes to be blessed. We often say that material possessions, honor, and freedom are happiness itself. But we cannot guarantee this kind of happiness for a long time.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 way we live in the Lord and follow Him is the shorter way to happiness. Therefore, we have to meditate on God's word day and night. As many of God's servants have read and meditated on Psalms 119, they were called by the Lord.

2. 여호와와 말씀을 알고 순종하라(3-4절)

2. Know and obey God's words (v. 3-4)!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복종해야 합니다.

Someone may say that he has a very good grasp of the Bible. But, we should not be satisfied with knowing the Lord's word, but obeying and living according to His word.

복된 사람은 불의를 행치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배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Those who are blessed do not do anything wrong. Blessed are those who witness, obey, and learn His words. We should devote ourselves to studying the Bible with much time and effort. We should obey what the Lord is saying to us.

3. 정직한 소원을 가지라(5-6절)

3. Have a righteous hope (v. 5-6)!

매우 경건한 믿음을 가진 시인도 “내 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5절)고 애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경건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psalmist, who had a very pious faith, prayed appealing to God, "Oh, that my ways were steadfast in obeying your decrees" (v. 5)! He said that he knew as a sinner how he himself was not pious. Even though we want to obey God's decrees, we cannot obey it for ourselves. But God gives us a heart that can fully obey God and bear the fruit of obedience effectively.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고, 자력으로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My beloved congregation!

The psalmist decided to learn and keep God's word, and prayed that the Lord would help him so that his decision would not falter. Like the psalmist, we should also give thanks to God, learning and keeping His words, which are the origin of blessings. I pray earnestly that both you and I will bear the fruit of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감사하고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이 무너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고, 감사하고, 지키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이번 주 사랑부 · 장년부 · 대학부 여름수련회 시작

이번 주부터 2009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어제부터 오늘(7/12)까지 우리교회에서 '사랑은 더하고 섬김은 나뉘요'를 주제로, 장년부 여름수련회는 '가정, 그 신비함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장신대 홍인종 교수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7월14일 오후 7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7월15일(수)~18일(토)까지 4일간 성광수련원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학부'를 주제로,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7월19일(주)~21일(화)까지 서울교회에서 3일간 각각 열린다.

무더운 여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우리교회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참석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배워, 섬김의 본을 다하는 기독교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로교 지도자 간담회 - 7월17일(금) 서울교회 -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운 목사)는 한국의 장로교 연합과 일치를 위한 교회지도자 50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다.

7월 17일(금) 우리교회에서 모이는 이 모임은 한국 장로교회 앞길을 비춰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2009년 제2차 새가족환영회

7월18일(토) 오후 5시 801호 / 3월22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 초청

2009년 제2차 새가족 환영회가 7월18일(토) 오후 5시 801호에서 열린다. 제1차 새가족환영회 이후(3월22일 이후) 새로 등록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한 분들 중에도 지난 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할 성도들은 당일 오후4시30분까지 801호에 모여 찬양으로 준비한다. 이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는 한 가족에게 서울교회 10년사 1권씩을 참가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참석한 새가족 중 다섯 분을 추천하여 위임목사님이 친필로 서명한 성경찬송(새찬송가합본 1권씩을 선물로 증정한다.

서울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이 하나 되고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제 1회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남북청소년 화합한마당

7월 27일(월) ~ 31일(금) 서울교회에서

제1회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남북청소년 화합한마당 축제가 7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남북청소년 화합한마당 축제는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을 탈출하여 자유와 희망을 찾아 우리 대한민국에 발을 디딘 수많은 탈북청소년들과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 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 작은 모임이 북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도록 기도한다.

2009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7월19일(주)까지 장학회로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위원장 서문석 장로)는 2009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7월 19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특기자를 제외하고 지난 학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서류는 ①추천서 각1부(교구, 교회학교) ②재학증명서 1부 ③성적증명서 1부이다.

2009년 4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우리교회 당회는 3/4분기 섬김위원으로 추가되는 이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새로 임명받는 섬김위원들이 충성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찬양대: 최영필 한성규
- 할렐루야찬양대: 백인선 양영순 박진형 기수만
- 임마누엘찬양대: 이한나 김영우 박승기 정진환
- 베들레헬찬양대: 김광욱 류기찬 오병승 박봉기
- 예루살렘찬양대: 김현정3 전리사
- 호산나찬양대: 김인혜1
- 시온찬양대: 유신희 이정수3
- 그레이스헌드벨: 김혜린 박찬희 정다운

<설교사역도고부>

권순단 이수자 강윤희1 원명희 박명석 채경희 박분옥 하영숙

<교구위원회>

- 6-13다락방장: 최성희1 부다락방장: 홍은미
- 13-30다락방장: 김영옥 부다락방장: 유슬기

<전도위원회> (70인전도대)

- 화요축조전도팀: 김애순
- 화요기도팀: 안명심 정미애 신명희 김수진4
- 수요오후전도팀: 김진희 원복순 이현숙3
고경순 윤현미
- 수요(노방)기도팀: 최금봉 황정아 김홍두 김점숙
함정희 홍근표
- 목요축조전도팀: 김애순 박영애 홍성혜 김은희1
- 목요기도팀: 오종례
- 문서전도팀: 강윤경1 김인실 장성자1 표현희 진교숙
- 전도폭발제자훈련: 주간팀장-윤숙지
야간팀장-박정임

<재정위원회>

- 3부 계수위원: 김영호

제2대 목사에 박노철 목사 7월5일(주) 특별제직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

지난 7월1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열린 특별당회에서 당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의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제2대 목사 청빙 건이 7월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특별 제직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특별 제직회에 참석한 제직들은 당회 서기 김영준장로가 의안 상정을 한 후 제직회 의장 이종운 목사가 배경설명을 하고 실시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본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제 박노철 목사는 우리교회 2대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나 장신대에서 실시되는 청빙과정을 마친 후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우리 교단 목사로 세움을 받아 서울교회 제2대 목사로 임직하게 된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

가슴에 한 생명을 품으며...

장기속 집사(16교구)



우리 문서선교팀은 산모가 태아를 잉태하는 심정으로 엽서를 봉투에 담으며 기도합니다. 작은 엽서 한 장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문서 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벽을 열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의 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토대로 삼아 순종하는 믿음을

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태신자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가슴에 한 생명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태한 받은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신행일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태신자들을 성숙한 신자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합과 일치 를 위한 장로교의 날

성숙의 달 7월! 종교개혁을 완성한 요한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 개혁주의 신앙의 후예들은 이날을 장로교의 날로 선포하고, 장총체육관에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연합하고 일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 서로 열사안고 화합을 다짐하던 날



제 1권사회(회장:이은희 권사)는 아침부터 은혜와 감사로 기도하며 정성껏 성찬을 준비하였으며, 제2권사회(회장:이영자 권사)는 3시간 전부터 본 대회 준비위원장인 이종윤 목사님과 이날 행사를 위해 뜨거운 기도를 했다. 성례위원들과 안내위원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며 이 대회를 준비했다.

대회시작 두 시간 전 26개 교단 임원 170여명이 자유센터에 모여 교계의 악수를 나누고 식사를 한 후 대회 장소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화합과 일치를 다짐했다.

식전행사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6개 교단을 상징하는 기수단이 먼저 입장했다. 이 순간 교단을 초월해서 목회자,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돌리는 연합과 일치의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장로교의 정체성 회복으로 연합과 일치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회는 다 함께 "장로교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성숙한 신자로서의 거듭남을 실감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주최로 본 대회를 성도들과 기도로 준비해 온 이종윤(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상임회장, 본 대회 준비위원장) 목사님께서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 중심사상을 강조한 칼빈의 500주년 기념일에 장로교 정체성을 회복하고, 2012년 장로교 100주년을 맞이할 때면, 어떤 형태의 연합을 하도록 지금부터 힘을 것"을 선포하셨다. 또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여 마침내 그 힘을 뿜어 세계복음화의 교두보를 놓기 위하여, 앞으로도 우리 장로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자"고 했다.

제2부 예배 설교를 맡은 김삼환(명성교회 당회장)목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의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조직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다.



▶ 고려 측과 통합 측(좌), 가장 측과 합동 측(우)

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것을 기뻐하며, 둘째로 하나 됨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며, 셋째로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했다.

강연회는 "한국 장로교회가 서 있는 자리"란 주제로 강연을 맡은 문병호(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우리가 21세기의 장로교인들로서 16세기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개혁교회의 작은 불씨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왔다고 했다.

성찬예식은 최병남(예장합동총회장)목사님 집례로 주님의 찢기신 몸이요,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갖으며 성찬에 임하게 했다. 금년에 백수를 맞은 방지일(영등포교회 원로목사) 목사님께서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닦을 때,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삼아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해 달라고 축도하셨다. 이어 참석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 됨을 위하



▶ 방지일 목사

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여 고백하고, 힘써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

시게 하며, 세상에 주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을 힘써 전하고 나누도록 하자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제 3부에서는 분열의 죄를 "회개"하며, 개혁과 화해로 "희망"을 찾고, 사랑마를 아가페 타운을 "실천"하며, 복음화된 "통일"조국과 흥해를 여는 출애굽의 대장정으로 "한장총의 미래"를 오치영 기획본부장이 비전 제언을, 대회선언은 홍기숙 여성분과위원장이 했다. 이어 진행된 7인 위원들의 실천강령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 우리는 한국 사회의 변명과 발전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회개의 삶

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2. 우리는 다변화되는 한국사회에서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이 함께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선도할 것을 선언합니다.
3. 우리는 한국을 지탱해나가는 힘이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확신하며 요한칼빈 목사님의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켜나가기도록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4. 우리는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마를 아가페 타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5. 우리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의 흥해를 가르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향한 출애굽의 대행진을 펼쳐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미래의 한국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기 위해 개혁신학에 근거한 균형 잡힌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을 선언합니다.
7.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한국 교회의 미래 꿈나무를 입니다. 교회학교 교육과 신앙 안에서 튼튼히 배우고 자라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린이가 되어 한국 사회의 밝은 미래가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이어진 축하음악회는 성악가와 가수들이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의 일체감과 행복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종윤 준비위원장은 화해, 화목, 화평을 위해 각 교단 대표들을 단상으로 초청하여 화해의 포옹과 악



▶ 26개 교단장과 총무들

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각 교단 대표들은 포옹을 하고 손에 손 잡고 찬양하여 대미를 장식하였다. 또한 이종윤 목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교단을 초월해 5인 이상 서로 용서를 비는 인사를 하여 성도들간의 화목을 이루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서로가 연합하여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성도 한 사람은 물론, 한국 교계와 사회에 예수님 닮은 귀감으로 은혜의 물결을 이루며, 다가오는 2010년 장로교 100주년과 2015년 광복 70주년을 힘차게 맞이할 때까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글: 편집부: 윤영남 권사
사진: 유태서 정치는 윤요셉 오주명 임종현

교육1국 여름성경학교 - 초대이글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어린이

황광목사(교육위원회 지도)

2009년 교육1국은 '섬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7월 19일(주일)부터 21일(화)까지 서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대를 포스터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느낌과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치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기준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기준입니다. 조그만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고 건축물이 올라갈 때도 기준선이 되는 측량기구 다립줄이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와 기준선이 되는 다립줄이 없으면 건축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 지고 나중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녀들의 인생행로입니다.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하고 가

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 기준이 되는 성경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세워지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반석위에 지은 집 같아서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고, 가족 간의 휴가도 중요하지만 1년에 1번, 지도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서울교회 여름성경학교로 어린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초점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 어린이들도 다음 부흥 세대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영적으로 자라날 어린 영혼들과 이 일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관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부 수련회 - 초대이글

예수님의 성기를 달아가길...

김은비 (대학부 회장)

대학부에서는 '섬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15일~18일, 3박 4일 동안 강화도 성광수련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갖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수련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찾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심기를 배우고 달아가며 그 곳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 됨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대학부 지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청년의 때에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대학부 여름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1985년 창단된 한국장로성가단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77개 교회 장로 1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 성가단은 오늘 저녁 '크고 영화로우시다(F. J. Haydn)' 외에 4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에 김명열 장로(울산 시립합창단 지휘자/서울교회 무지개어린이합창단 자문위원), 피아노 반주는 임정미 집사가 담당한다.

2009년 9기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

12일(주) / 19일(주) / 26일(주)
- 8층 로비 -

8월3일(월)부터 12일(수)까지 10일간 캄보디아 4개 군부대로 파송돼 의료 및 이미용, 어린이사역, 방역 등의 봉사를 하고 귀국할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자비량으로 파송되는 이번 선교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갖는다. 7월 12일, 19일, 26일에 8층에서 열리는 단기선교 바자에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6일(목) 북한 구원 운동 공동회장단을 소집한다. 17일(금) 장로교 지도자 간담회를 주관한다.

■ 이사: 4교구 이영주 집사(최영혜 권사) 서초구 우면동 대림@ 104동 302
9교구 이관규 장로(이순영 권사)가정 성동구 마장동 818 현대@ 108동 1801호 T. 2291-5473
11교구 고준석 성도 이현주 성도 가정,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5동 2603호

■ 득녀: 12교구 김성주 성도 한주희 성도 가정(2교구 한주찬 집사 김수호 권사 외손녀)

■ 주간식당봉사: 도르가 전도회(7월12일) 뱀뽀전도회(7월19일)

■ 금주의 식사: 정월순 권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칼빈탄생500주년기념, 장로교 지도자 간담회(17일)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4.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